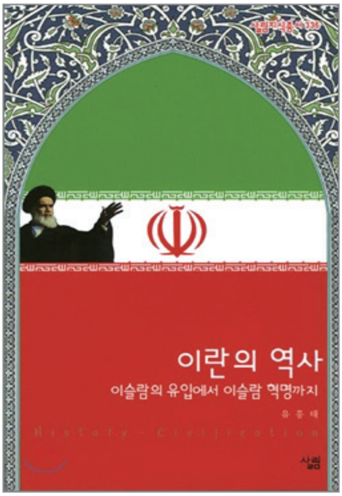

제목	이란의 역사: 이슬람의 유입에서 이슬람 혁명까지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살림출판사
발행일	2008. 8. 25.
저자	유흥태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95
ISBN 또는 ISSN	978-8952209849

내용 요약

이 책은 7세기 이슬람 출현 이후부터 1979년 이슬람혁명 때까지의 역사를 정치사 중심으로 쓴 연대기이다. 이슬람 압바스 왕조 시기의 이란 독립 운동은 타히르조, 사파르조, 사만조 독립왕조들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이슬람화된 투르크인들이 '맘룩'이라는 전쟁 노예, 혹은 용병으로 이란에 들어왔다. 이들은 사만조 말기에 고위직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사회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여 10-13세기 가즈나, 셀죽, 하라즘샤라는 세 왕조를 건립하였다.

이슬람에 이은 두 번째 외래 왕조는 일한조와 티무르조이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훌라구는 이란을 공격하여 압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일한조를 성립하였다. 일한조의 몰락과 사회적 혼란으로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하는 티무르가 왕조를 성립, 이란을 공격하였다.

16세기 시작된 사파비조는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성립하고, 시아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였다. 왕조는 압바스(Abbas) 왕 때 번영하였고, 이후 네 명의 허약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이후 아프샤르조와 잔드조로 이어졌고, 카자르조부터 근대왕조가 시작되었다. 서구 제국주의 시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란은 주권을 침해당하거나 굴욕적인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1차 대전 후 레자 칸은 1923년 영국의 지지를 받아 총리로 취임하였고, 1925년 의회의 승인으로 팔레비 왕조를 개시하였다. 1963년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는 '백색혁명', 서구화, 근대화를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억압적인 개혁정책은 반정부투쟁을 불러일으켰다. 1979년 팔레비 왕가의 망명과 호메이니의 귀국으로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다.